

“온 도시가 패닉... 학교·박물관 문 닫고 시민들 외출 자제”

한국독립PD협회 이지용 PD가 전한 파리 현지 표정

지난 13일 밤(이하 현지시간) 프랑스 파리는 더 이상 문화와 예술의 도시가 아니었다. 말 그대로 공포의 현장이자 지옥이었다. 술집·카페·록 콘서트장·축구 경기장 등 6곳에서 ‘불타는 금요일’의 열기를 만끽하던 파리 시민들은 무자비한 테러범들의 총격과 폭탄 속에서 쓰러진 시신으로 변했다.



한국독립PD협회 소속인 이지용 PD는 KBNE 프랑스 책임PD다. 그는 공중파에서 진행하는 ‘세계는 지금’ 등 국제시사 프로그램을 다수 연출했다.

전대미문의 동시다발 테러로 파리가 야비규환의 현상이 되는데는 겨우 세 시간 정도 밖에 걸리지 않았다. ‘파리 판 9·11 테러’에 시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프랑스 파리 남쪽 생클루에서 30년간 생활해온 한국독립PD협회 소속 이지용(50) PD는 “온 도시가 그야말로 패닉 상태”라며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그는 이번 테러사건에서 가장 많은 희생자가 발생한 바탕클랑 극장에서 4~5km 떨어진 곳에 거주하고 있다. 그는 테러 사건 직후인 14일, 11명이 숨진 파리 북쪽 샤를거리 캄보디아 식당 주변을 찾았다. 식당 유리창과 벽면엔 테러범들이 쓴 총탄 자국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다고 그는 말했다. 또,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조화·촛불이 즐비하게 놓여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파리 시내에는 루브르 등 주요 박물관과 놀이시설 등이 모두 문을 닫으면서 평소 주말과 달리 한산했다고 전했다. 다음은 이PD와 일문일답.

샤를거리 캄보디아 식당

희생자 추모 조화·촛불 즐비

생드니 무슬림 밀집지역

거리 사람 없고 순찰 강화

주변과 벽면엔 당시의 끔찍한 사고 모습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총탄 자국이 곳곳에 남아 있었다. 현장은 아직까지 복구되지 않은 상태다. 조문객들은 희생자들이 숨진 장소에서 기도를 올리는 등 희생자들을 추모하고 있다.

—학교·박물관 등 공공시설들은 폐쇄된 상태인가.

▲학교는 물론 박물관 등도 모두 휴교·휴관상태다. 에펠탑도 문을 닫았다. 이번 테러가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공기관에 대해 일시 휴교령 결정을 내린 것 같다.

—시민들의 모습을 전해달라.

▲인구밀집지역이나 바깥 출입을 자제하는 분위기지만 시민들의 동요는 없다. 다만 외출을 자제하면서 평소와 달리 거리는 매우 한산한 상태다. 이번에 사고가 난 지역은 젊음의 거리로, 시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다. 평소엔 많은 인파들이 몰리는 곳인데, 지금은 텅 비어있다. 다만 사고 현장 주변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조문객들만 간혹 눈에 띈다.

—희생자가 가장 많았던 바탕클랑 극장은 어떤 곳인가.

▲극장주인이 유대인이다. 평소에도 유대인들이 자주 모여 회의를 하거나 행사를 하는 곳이다. 수년 전에도 이 극장은 테러의 표적이 됐다.

—IS가 프랑스를 테러 표적으로 삼은 이유는.

▲IS 본인들 얘기로는 지난 9월부터 프랑스가 IS공습에 나서고 있는데, 공식적으로 거기에 대한 보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또 파리의 상징성도 표적이 된 이유 중의 하나다. 여러 유럽 국가 중 프랑스가 가장 많은 중동인(무슬림)들이 있는데, 다시 말해 파리에 IS와 관련된 조직이 있어서 손쉽게 범행을 저지를 수 있었다고 본다.

—파리에 무슬림 밀집지역이 있는가.

▲있다. 북쪽 생드니지역인데, 중동·아랍 등 이주민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 주민들은 외출을 삼간 채 언론 보도와 정부의 발표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 현재 정부에서 대중집회 금지 등 선연한 상태다. 해당 지역에서 아직까지 집회는 없지만 순찰은 강화됐다.

—이번 사건 이후 시리아 난민 수용 정책에 대한 변화는.

▲공식 입장 발표는 없었다. 다만 테러 범 중 일부가 그리스를 통해 입국한 난민으로 밝혀지면서 국경 검색이 강화됐다. 이전까지 유럽연합(EU)간 이동은 자유로운 왕래가 허용됐지만 현재는 군·경이 국경에 배치돼 검문검색을 강화한 상태다. /이충행기자 golee@kwangju.co.kr



테러 희생자 애도...3색 조명 13일 발생한 파리 테러 희생자를 애도하는 의미로 프랑스 국가의 세가지 색을 조명으로 연출한 세계 각국의 랜드마크 건물. 사진 위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 베를린의 브란덴부르크 문, 멕시코 푸에블라시 궁전, 상하이 오리엔탈 필 타워. /연합뉴스

“안전한 곳 없다”... 테러 공포 전세계 확대

공연장·음식점·경기장 등

불특정 민간인 무차별 공격

곳곳서 ‘소프트 타깃 테러’

전 세계가 테러 공포에 떨고 있다. 공연장, 음식점, 관광지, 열차 등 사람들의 일상이 펼쳐지는 공간을 노린 테러 공격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프랑스 파리에서 13일(현지시간) 밤 발생한 무차별 공격으로 누구든지 밥을 먹거나 공연을 보다가 한순간에 테러로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다시금 확인됐다.

파리 테러처럼 대규모 공격을 감행하면서 민간인을 겨냥한 공격, 이른바 ‘소프트 타깃’(soft target) 테러가 갈수록 늘고 있다. 소프트 타깃 테러는 상대적으로 침투나 공격이 어려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하드 타깃’(hard target) 테러와 반대되는 개념이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공격인 만큼 사람들의 공포감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테러 단체들이 소프트 타깃 테러를 점점 즐겨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에서 발생한 이번 공격도 록 밴드 공연이 펼쳐진 공연장, 파리 시내의 카페와 음식점, 관중이 들어찬 축구 경기장 등 일상 공간을 상대로 펼쳐졌다.

프랑스뿐만 아니라 터키, 스페인, 태국, 인도, 케냐 등 세계 곳곳이 일상 공간을 노린 테러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터키에서는 지난달 10일 앙카라역 광장에서 수니파 무장조직 ‘이슬람국가’(IS)가 저지른 대규모 자살폭탄 테러가 발생해 102명이 사망했다.

관광대국인 태국은 올해 8월 방콕 도심의 관광 명소에서 폭탄이 터져 목숨을 앗았다. 당시 폭탄 테러로 20명이 사망하고 125명이 다쳤다.

7년 전에는 파리 테러와 비슷한 도심 테러가 인도에서 발생했다. 인도 뭄바이에서는 2008년 11월 26일 밤 최대 변화가에 있는 호텔, 식당, 철도 대합실, 지하철 역사, 시장 등 인구 밀집 지역에서 10명의 무장괴한이 동시다발로 총을 난사하고 수류탄 투척해 166명이 숨졌다. 인도의 사미르 파틸 안보 전문가는 AFP통신에 “유명 도시에서 사람이 붐비는 식당 등을 공격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파리 테러는 뭄바이

공격과 비슷하다”고 설명했다.

2004년 스페인 마드리드 기차역에서도 동시다발 폭탄 테러가 일어나 200명이 죽고 1200여 명이 다쳤다.

스페인 기차역 테러가 발생하고 1년 후인 2005년 영국에서 발생한 지하철과 버스에서의 폭탄 테러는 출근길 시민을 목표로 삼았다. 이슬람 극단주의 테러단체 알카에다 소행으로 추정되는 당시 공격으로 무고한 많은 시민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리카도 소프트 타깃 테러의 악몽을 비껴가지 못했다. 올해 4월 케냐 대학에서 이슬람 무장단체 알샤바브의 공격으로 학생 등 148명이 희생됐다. 알샤바브는 2013년 9월에도 케냐 수도 나이로비의 웨스트 게이트 쇼핑몰을 공격해 67명의 목숨을 앗아갔다.

민간인을 노린 공격은 앞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서방 국가들과 이슬람 수니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 러시아 등이 시리아에서 IS에 대한 공습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IS의 반격의 총부리가 무고한 시민을 향한 가능성은 앞으로도 얼마든지 있다. /연합뉴스

국회 테러방지법 제·개정 논의 활발해질 듯

프랑스 파리에서 발생한 사상 최악의 테러를 계기로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 관련법에 대한 제·개정 논의가 다시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15일 국회에 따르면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테러방지법안은 5건으로 크게 대응범죄는 테러와 사이버테러로 나뉘는데 모두 여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새누리당 송영근 의원 등 10명이 지난 2013년 3월 공동발의한 ‘국가테러활동과 피해보전 등에 관한 기본법안’이고, 이병성 의원 등 73명이 올 2월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을, 이노근 의원 등 10명이 올 3월 ‘테러예방 및 대응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했다. 세 법안의 골자는 국

정원 산하의 대테러센터에서 테러위험인물에 대해 통신이용과 출입국, 금융거래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온라인에서 은밀히 이뤄지는 테러활동 감시를 위한 사이버테러 방지법의 경우 2013년 4월과 올 6월 사상이, 이노근 의원이 각각 발의해 계류 중이다.

그러나 이런 법안에 대해 야당은 ‘국정원 강화법’이라고 비판하며 이 법안 내용대로는 절대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HNT 하나투어

휴:休

휴식이 필요한 당신께!

제 1회 하나투어 온라인 여행박람회

기간 : 2015.11.16(월) ~ 11.29(일) / 2주간

추천 휴(休)양지 세부 CEBU

프리미엄 로드샵 광주 총장점
문의전화 062) 228-1199

리스트 | 세부

클래식 ○APP179

박람회 특가 + 동반아동10만원 할인

세부 5일

총상품가 **75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30~
선택경비 있음

☎ 제이파크 아일랜드 리조트

☎ 매일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항공, 진에어

☎ 세부(3)

하나투어 마일리지 5만 마일 특별 적립

☎ 망고초콜릿 증정, 맥탄스워를 3박이음, 발마사지 체험, 다이빙 강습 포함

골프 | 클락 레이크 우드

클래식 ○APG104/154

최대10만마일적립+드라이빙레인지 무료이용

클락 4일, 5일

총상품가 **290,000원~**

현지지불 미팅샌딩 차량비 \$60~
선택경비 있음

☎ 마이크로텔

☎ 매일

✈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필리핀항공, 진에어

☎ 세부퍼시픽 항공

☎ 클락(3/4)

클럽하우스 중식 및 전 일정 식사 포함
무제한 그린피

온천 | 폼카이드(북해도)

클래식 JSP510

미니그룹 최대 20만원할인+바디용품증정

폼카이드 4일

총상품가 **869,000원~**

현지지불 가이드/기사경비 포함
선택경비 없음

☎ 조산케이호텔/영수정/이비스스타일즈 싯포르

☎ 매일

✈ 진에어

✈ 치토세-삿포로(1)-노보리벳초-도야-

기타유자외(1)-오타루-조산케이(1)

☎ 온천호텔 2박+시내 특급호텔 1박, 조산케이+기타유자와 온천욕 체험, 대게요리 뷔페 제공

■ [여행상품 가격포함내역] 유류할증료, 공항이용료, 전정보행료, 관광진흥기금기부금, 운송/숙박/식사요금, 여행자보험료, 현지관광입장료 등 반드시 고액이 부담해야 하는 모든 경비 포함한다. 개별여행상품은 미적용. ■ [유류할증료] 유류할증료는 여행상품 가격에 포함되어 있으며, 발권일, 환율 등에 따라 변동 가능하다. ■ [가이드경비] 가이드경비는 상품에 따라 여행상품가격에 포함 또는 불포함될 수 있으며 불포함시 현지에서 별도로 경비를 지불하여야 한다. ■ [여행상품 내용]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선택경비] 현지에서 고가의 선예에 대한 자유롭게 선택관광에 참여하는데 그에 따른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선택관광 미참여로 인한 불이익은 없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일정표 및 홈페이지 www.hanatour.com에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시장] 여행상품의 변경되는 경우 여행사의 사전 동의를 받으십시오. ■ [관광사원자 등록번호] 제269004-1993-6 (종로구청) 서울시 종로구 인사동5길 41 하나투어 빌딩 8층(하나투어) ■ [최소 출발인원] 10명 / 기준/ 호텔 2급호텔 이상 2인 1실/고통면 항공/버스/해리(상품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고객청탁/불만접수] Tel 1577-1233(ARS 안내번호 0번) ■ [여행 상품] 22억 (천만원 가림) * 항공권 또는 항공권이 포함된 상품과 상품가격에는 유류할증료와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으며, 유가와 환율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상품에 따라 선택경비가 발생할 수 있으며, 선택경비는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지불할 수 있습니다. 선택경비의 금액 및 선택관광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hanatour.com)를 참조해 주십시오. 해외 안전 여행 단계별 국가 지정 위험 1 ■ 여행 유망 2 ■ 여행 자제 3 ■ 철수 권고 4 ■ 여행 금지